

현대의 찬불승

그동안 문학으로 포교에 기여해왔던 한국불교문인협회가 올해부터 한국불교문학을 계간지로 발간하게 된 것에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불교문인협회는 지난 1985년 발족한 이래로 문학이라는 도구로 중생제도라는 부처님의 원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부처님의 재세시 이래로 많은 불제자들이 수많은 방법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자신의 신앙을 표현해왔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시와 계송으로, 어떤 이는 노래와 음악으로, 어떤 이는 그림과 조각으로, 또 어떤 이는 건축과 공예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마음 깊은 심연으로부터 끓어오르는 한량없는 신심을 나타내었으니 이러한 모든 표현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세계적인 보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신심과 불법을 널리 선양하고자 했던 선조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학을 통한 불법의 홍포 역시 부처님 당시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부처님 재세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장로와 장로니들은 그 넘치는 기쁨을 계송으로 노래하였습니다. 오늘날까지 전하는 장로계경, 장로니계경은 바로 이 분들이 읊은 환희의 노래입니다. 이 환희의 노래는 이제 경이라는 이름을 얻어 삼장(三藏) 속에 자리하였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서기 1세기에 이르러 마명보살이 지은 불소행찬(佛所行讚)은 부처님의 일생을 대서사시로 구성한 것으로 문장의 아름다움이나 내용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위대한 작품으로 칭송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함을 찬탄하는 이러한 작품들은 당시 불교의 부파를 초월하여 제작되면서 마침내 불전문학(佛傳文學)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이루게 되었고 여기서 나아가 찬불승(讚佛乘)이라는 새로운 부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불승으로부터 대승불교의 새로운 기운이 생겨났다는 것을 불교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문학적 활동들이 대승불교라는 새로운 불교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부처님의 덕과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부처님처럼 되고자 했던 과거세의 불자들이 이루어낸 큰 업적입니다.

우리의 역사에서도 문학적 활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고 그 사상을 전파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신라의 스님들은 향가를 지어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하였으니 도솔가나 원왕생가, 도천수대비가 등의 향가가 그것입니다. 고려의 일연스님이 지은 삼국유사는 역사에 대한 기록이면서 불교의 사상을 담고 있어 우리 민족이 역사적 교훈을 불교적 가치로 읽어내는 눈을 갖게 하였습니다. 또한 억불이 행해지던 조선시대에도 세종은 자신이 창제한 한글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석

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을 지었습니다. 그 밖에도 심청전, 흥보가 등 수많은 설화와 민담이 불교의 가르침을 담고 저술되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만해 한용운 스님이나 춘원 이광수를 비롯한 수많은 문인들이 불교 사상과 가치에 근거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가르침과 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는 바로 불교 문인 여러분들이 이러한 면면한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능력을 가진 문학작품이 갖는 이러한 힘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을 만들어내는 창작활동과 문인들의 노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불교문인 여러분들은 과거 선대 불교문인들의 서원을 이어가는 현대의 찬불승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역할을 잊지 마시고 이제 우리 후대에 전할 이 시대의 걸작, 이 시대의 보물을 만드는 일에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